

## 노대통령, 농림수산부장관에 강보성의원 임명

- 홍 보 부 -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

### ■ 주요 약력 ■

▲ 30년 11월 5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출생 ▲ 단국대 정외과 및 동 대학원 수료 ▲ 단국대 총학생회장, 총동문회장 ▲ 제주대 교수 ▲ 남주학원 이사장 ▲ (주) 산구체인 대표이사 ▲ 11대, 13대 국회의원 ▲ 민한당 정책심의회 부의장 ▲ 통일민주당 정무위원, 당기위원장, 정치훈련원장, 제주도당위원장, 농림수산위 간사 ▲ 국회 한일 의원연맹 부간사장 ▲ 제주도 문제연구소 이사장 ▲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민자당 간사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이승윤 민자당 의원을 임명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 강보성 민자당 의원을 기용하는 등 1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강보성 신임 농림수산부장관은 3월 19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농어촌 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농정의 신뢰회복 등 기존의 농림수산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60세)은 제주도 남제주군 출신으로 단국대 정외과를 졸업한후 제주대 교수, 민한당 정책심의회 부위원장, 11대와 13대 국회에 진출한 재선의원으로 3당통합에 따라 30년간의 야당생활을 청산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 기용되었다.

강 장관은 4당 체제하에서는 국회 농림수산위 간사를 역임했고, 최근 3당통합후에도 다시 농림수산위 민자당 간사를 맡는 등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이 중론.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 점진적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실현, 농축수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평소 강 장관의 농정에 대한 신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